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3)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金知民/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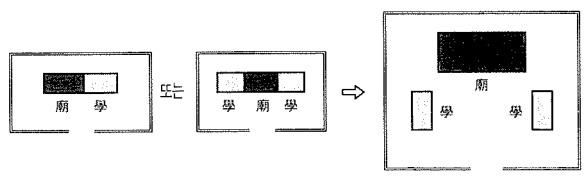
배치상에 나타난 儒敎的 규범

性理學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만물을 形而上의 理와 形而下의 氣의 二元的 복합체로서 파악하여 理는 物性을 결정하고 氣는 物形을 결정한다고 보면서, 理와 氣는 나누면 둘이지만 氣를 떠나 理가 존재할 수 없고, 理없는 氣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理와 氣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연의 性은 純善하여 仁義禮智로 나타나나 인간은 또한 氣를 타고나므로 氣質에 의하여 본연의 性이 흐려져서 喜怒哀樂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리학에서의 理는 자연법칙인 동시에 도덕규범이기도 하였다. 성리학의 天人合一說에 의하면 각종 죄악을 일으키는 氣質의 性을 변화시켜 온전한 본연의 性을 되찾아 발휘하는 일이 사회적 인간의 최대 과제라고 하여, 인간사회의 결함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敎化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하였다. 즉 君과 臣, 父와 子, 夫와 婦, 主와 奴, 班과 常, 그리고 華와 夷 사이에는 사회적 분수에 따라서 上命下服의 관계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중세사회의 현실적 인간질서를 일관된 하나의 세계관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10]

이상으로 볼 때 新儒學인 性理學이 내세운 "人倫", 특히 忠.孝.禮.信은 新興士大夫들의 지방중소지주로서의 가족도덕과 신진관료로서의 정치도덕 · 사회도덕이 되었다. 이러한 도덕질서는 결국 수직적인 位

10) 崔完基 韓國 性理學의 脈 느티나무 1991. P18



초기모습 1347~(?)모습

그림8. 寧海향교 배치 推定圖

"左學右廟" 배치의 영암향교

階秩序體系가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孔子를 先聖으로 모시고 유교적 이념의 실천장이었던 향교에서는 그 어느곳 보다도 유교적 질서체계가 확립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종교적으로 祭儀禮가 규범화되고 아울러 도덕적 윤리 질서가 정립되어 사회적으로 향교는 유교이념의 보급에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사례로 고려말 寧海鄕校[11]의 경우 한 건물에 공자의 상을 모신 사당과 강당이 함께하고 있는 無禮가 있어 별도의 건물로 독립시킨 예만 보더라도 그 사실이 입증된다. 결국 이러한 이념과 사고는 건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는 "前廟後學"과 "前學後廟"라는 규범[12]이 확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앞쪽에 문묘가 오고 축선상의 뒷쪽에 강학구역이 들어서는 유형으로 이 경우 향교가 들어선 곳은 지형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평지이다. 즉 동일한 선상평지에서 유교적 위계성은 "後"보다 "前"이 당연히 앞선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聖賢의 위패를 안치한 文廟區域이 講學區域보다 앞쪽에 들어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이 형식의 건축적 규범이 잘 드러난 향교로는 조선시대 府와 牧의 큰 고을로서 界守官이었던 경주 · 전주 · 나주향교와 현의 고을에 세워졌던 咸平鄕校 등이다. 이외 靈光(郡) · 井邑(縣)鄕校 등도 그에 속하는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1932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여 左學右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大邱鄕校도 그 이전의 위치에서는 前廟後學의 배치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慶山鄕校도 그와 유사한 향교다. 현재 전국의 231개 향교중 前廟後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

11) 東文選 卷5 記 寧海府新作小學記 : 本國鄕校之制 廟學同宮 機乎褻矣 而又引諸童子 使之群聒 於大成之庭 其爲褻益甚矣
乃與諸生 謀於父老 卜地於府之東北 役以農隙 不日而成
當中而殿 以奉魯司寇之像 左右爲無 以爲學蒙之所 遺廊遺垣 旣輪旣奐
고려조의 향교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향교처럼 文廟과 講學區域이 확연히 독립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寧海향교 뿐만 아니라 堤川향교의 경우도 명륜당없이 主殿 앞의 東 · 西廊에서 학업을 하였다.
鳩材庀瓦 甃屋 一間 左右前後 皆翼以廊 奉安先聖之影 以爲釋菜之殿
東西置廊 各四楹 以爲諸生講業之所 基南置門一間 旁置庖廚亦四楹
仍飾燕室 以爲教官息之處 制約而位備 功簡而事成(新增東國與地勝覽 卷 14, 堤川縣, 學校條)

12) 향교에 있어서 文廟區域과 講學區域이 언제부터 확연하게 分化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초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郡縣에서 한 境域內에 聖殿과 東 · 西廡를 설치하고 廡를 講學장소로 사용하는 즉, "廟學同宮"의 체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1402년에 창건된 利川都護府 향교의 경우 權近이 1403년에 쓴 記文 "聖廟中峙翼以齋廡東則 爲樓以凉於夏"(新增東國與地勝覽 卷 8. 利川 學校條), 1428년에 창건하고 1429년에 鄭以吾가 쓴 陰竹縣향교 記文 "作大成殿三楹東西廡 皆五楹南樓三楹繚以垣墻"(新增東國與地勝覽 卷 8. 陰竹 學校條) 善山都護府 海平縣향교의 記文(정인지 쓴) "其制聖殿三楹 謹釋奠也 東序三楹 便講廳也 西序三楹 冬煥居也 南樓五間夏凉處也 若廚若庫亦無不備 而繚以垣墻(新增東國與地勝覽 卷29. 善山 學校條)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442년 정인지가 쓴 海州牧향교 기문 "聖殿孔弊明倫堂翼然於其南左右夾室東西兩廡當南廊 爲間共有三十有五"(新增東國與地勝覽 卷 43. 海州 學校條)에 의하면 海州향교에는 명륜당이 건립됐음을 알 수 있다.
15C 말에 들어서는 이미 전국의 모든 郡縣에 향교가 갖추어진 시기이므로 시설 또한 상당히 발전된 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당시 大都護府로서 큰 고을이었던 江陵의 향교 경우 1486년~1488년에 걸쳐 重建이 있었는데 당시 쓴 記文을 보면 "其聖殿及東西廡又明年構東西齋與講 廳室如與祀廳祭器庫敎衛有司房皆新焉又明年建 南樓與前廊總七十餘間 鄕校之巨麗蓄無匹禮"(新增東國與地勝覽 卷 44 江陵學校條), 즉 聖殿과 동무, 서무로 구성된 文廟 일곽과 함께 다음 해인 1487년에는 강학당, 동재, 서재로 구성된 학교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현재의 강릉향교 규모와 거의 같고 배치 역시 두 구역이 분리된 "前學後廟의 배치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의 향교(光山)도 조선초기까지 존속했던 "廟學同宮"의 제도를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전학후묘의 배치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00년 성견이 쓴 기문을 보면 "先作聖殿 以安五 聖十哲 又作東西廡 以安七十子歷代諸賢 前置明倫堂 以爲講學之所 又有東西夾室 東則敎官所坐 而西則 名曰 司馬齋 邑中上舍人之所萬錬業 又有東西 齋 卽儒生之所居 西齋後有齋廳廳 東齋後有敎官衙室 於是神人咸寧 師生有舍,, 堂庫廚湢 各有收處 無虛六十餘間"(新增東國與地勝覽 卷 35. 光山學校條)이라고 되어 있어 향교건축 구성의 기본 건물들을 모두 갖추었고 배치 또한 整然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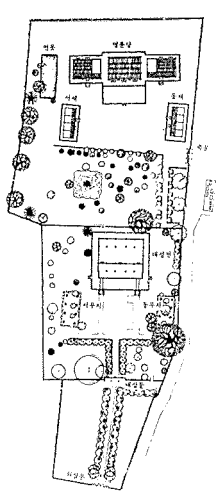


그림9. 羅州향교 배치도

함양향교 교육공간

안의향교 교육공간

청주향교 대성전

향교는 위에서 사례로 들은 8개소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건축적 規範은 儒敎的 질서체계를 최대로 準用한 造營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前學後廟" 유형은 講學地域이 향교 전면에 들어서고 그 뒷쪽으로 文廟區域이 오는 한국 향교건축 배치의 절대적인 類型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배치 유형을 결정짓는 물리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지형인데 거의 대부분 선택된 立地는 얕으막한 야산의 산록 경사지가 되고 있다. 즉 경사지역을 보통 3段으로 정지한 후에 낮은 단부터 進入區域, 講學區域, 그리고 맨 높은 단에 文廟區域이 들어서서 지형적으로도 上·中·下의 位階性이 확연이 드러나고 정신적으로도 제일 높은 곳에 文廟를 두어 聖賢에 대한 존엄과 외경심을 높이는 주의깊은 배려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건축적으로도 공간의 位階性과 부합되는 기법으로 특히 자연지리상 평지의 발달보다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형편을 감안할 때 前學後廟의 배치기법은 자연과 건축, 그리고 유교의 기본정신이 3박자로 조화된 우수한 조영규범으로 생각한다.

이 형식은 전체를 가로지르는 중심축이 건축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直進性은 또한 대칭성을 구성하는 요소(東·西廡와 東·西齋)와 함께 균형과 엄숙을 자아내고 있다. 즉 각각의 고유영역은 담에 의해 구별되고 문에 의해 결합되어 聖域의 位階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높아져 가고 있다.

한편 文廟와 講學區域이 左·右, 즉 병렬형식으로 놓이는 유형도 일부 향교에서 보인다. 즉 左側(左·右 기준은 坐向개념, 즉 등진 方位에서 正面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에 文廟區域이 놓이면 '左廟右學', 그 반대이면 '左學右廟' 형식이다. 이 유형은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數的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 이 형식의 형성요인은 물리적인 지형관계도 다소 내포된 듯 하나(從으로 單一直線軸을 형성하기에는 대지가 협소, 光陽鄕校 등)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즉 경사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넓은 평지에 입지한 향교도 이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제주·정의·돌산·영암·청도향교 등은 평지에 立地) 건립(조성)시기는 주로 조선후기로 한정되어지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호남과 영남, 그리고 제주 등 주로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15개소중 左廟右學 형식이 4곳, 左學右廟 형식은 11개소로 나타나 上位인 文廟가 주로 우측에 위치하고 下位인 講學區域이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左와 右의 위계적 질서는 古禮에서는 右(西)上의 질서를 따랐으나 조선시대 五禮와 家禮 등에서는 左(東)上의 원칙을 따랐다. 문묘의 위치는 고례에 따라 상위인 좌측에 놓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건축형성의 배경은 물리적인 지형(평지 또는 경사지)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그위에 성리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敬"의 공간이 위계적 질서체계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敬은 경서에서 말하는 덕목의 하나로서 특히 程朱學派의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중요시 되었다. 이는 성리학에 있어서 誠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성리학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석학 退溪는 敬이 聖學의 始終이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보아 敬이 우리 전통사상에서도 骨髓를 이루는 개념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듯 경은 성리학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 문묘.종묘.가묘 등에서 제사라고 하는 의례와 연결되어 인간생활의 절대적 정신규범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묘의 경우는 學의 구성과 차원이 다른 성스러운 敬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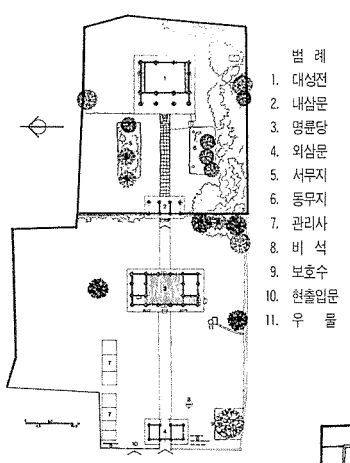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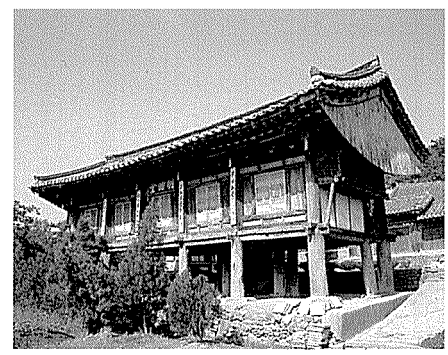


그림10. 仁同향교 배치도
(자료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단성향교 명륜당. 양끝의 지붕처리가 독특하다.



경사지형을 이용한 "樓"형식의 명륜당이 여러 향교에서 건립되었다. 옥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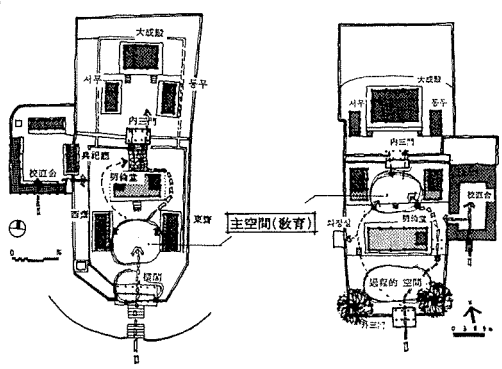


그림11. 講學구역의 배치구조

협천향교 詠歸樓

역으로 구별되어 평지와 경사지의 입지 여건에 따라 전후와 상하의 질서 개념이 확립되고 그러한 질서는 건축의 배치체계에 규범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조선후기에 창건 또는 새로 조성되어진 향교에서는 평지의 경우라도 "前學後廟"나 병렬형의 배치가 간혹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향교기능의 쇠퇴와 함께 유학의 성격이 변화한데서 오는 건축적인 시대현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시대 유교이념이 가장 강하게 뿌리내렸던 향교에서는 그러한 유교적 사상이 건축시대적 배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향교에서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신사회체계를 확립하려 했던 조선초기 사회의 관제적 기구였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도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요소가 타 건축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배치구조에 차이점이 드러나 건축의 다양성이 보이기도 한다. 그중 제일 두드러진 요소는 배치형식중 "前廟後學"유형이고 또 하나는 강학구역의 건물 조합중 명륜당과 동서재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前齋後堂"형과 "前堂後齋"형이다.

"前廟後學"유형은 앞에서 사례로 들었듯이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또한 조선시대 都邑의 규모에 관계가 없다.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남부지역 등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돋보인다. 자연 지리적 여건으로 전라도 지역이 특별히 평지가 많아 "前廟後學" 型이 선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의 모든 지역은 그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향교 營建의 주체는 守令과 鄕村社會의 막강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던 儒林들이었고 또한 당시의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평지에 향교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남지역에서는 평지에 장소를 택한 경우라도 "前廟後學"형식이 한곳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새로 조성되거나 창건된 향교로 시대성과도 연관이 된다.

한편 全州.羅州.慶州 등 조선초기 大都邑들이 成均館의 "前廟後學" 造營規範을 의도적으로 準用하려 했다면 오히려 지역적으로 한양과 더 근접해 있는 충청.경기.강원도 지역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따랐을 법도 한데 이곳에서는 한곳도 보이지 않아 주목이 간다. 사실 당시의 成均館은 유학교육의 최고기관으로서 향교는 교육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講學區域은 前學後廟의 배치의 경우 건물의 조합방법에 따라 공간의 형성 및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향교의 정문 가까이에 明倫堂을 두고 內三門쪽으로 兩齋를 배치하여 祭享儀式 區域과 바로 연결되어지도록 계획된 구역과 그 반대로 外三門쪽으로 兩齋를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 明倫堂을 두어 祭享儀式 구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듯하게 구역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건물 조합방법은 건립시기 또는 지형에 관계없고 다만 지역적으로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東.西齊가 전면에 오는 소위 "前齊後堂"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前堂後齊"형식은 전라도 지역의 거의 모든 향교에서 차지한다. 중부 지역인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두 형식이 혼재되어 있어 통일적인 요소는 없다.

절제된 단순미—구조와 造形

향교에는 공자를 聖人으로 간주하여 숭배와 함께 종교적 개념의 祭를 올리는 文廟가 있기는 하나 엄격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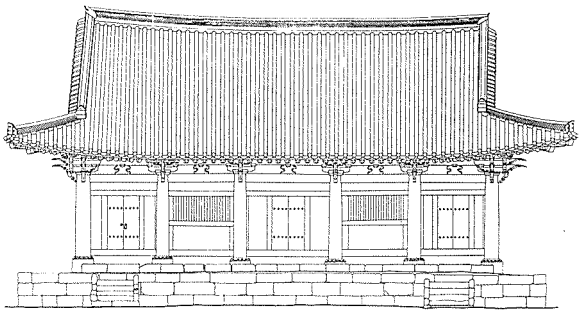


그림 12. 羅州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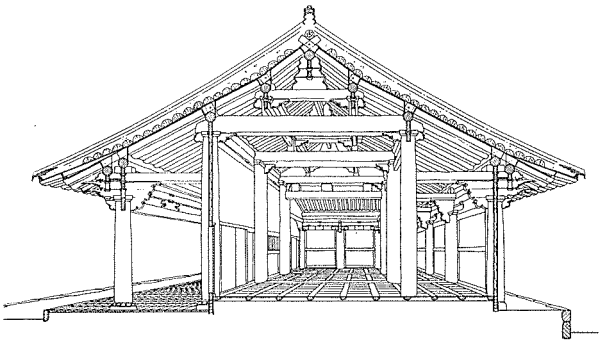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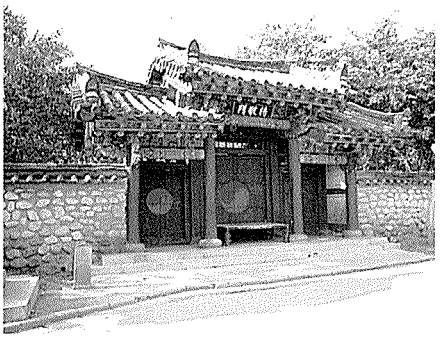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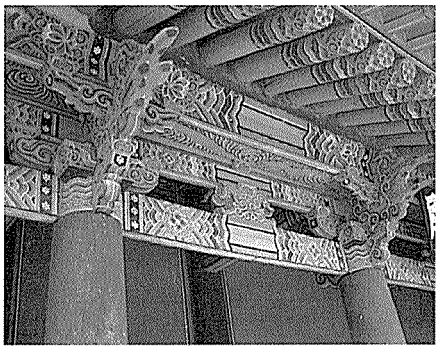


그림13. 羅州향교 대성전 실내 투시도 (자료 : 에그린 건축사무소)

인근사찰의 석등 부재를 옮겨와 대성전 초석으로 사용한 창평향교



전주향교 외삼문. "持敬門"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나주향교 대성전 공포(주심포)

표4. 건물별 구조와 조형

건물명 / 건축내용	문묘구역		강학구역	
	大成殿	東·西廡	明倫堂	東·西齋
기 단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기단재료	다듬돌, 막돌	막돌	막돌	막돌
초 석	막돌, 가공초석	막돌초석	막돌초석	막돌초석
기 둥	원주	원주, 방주	원주, 방주	방주
공 포	주로 익공식, 주심포·민도리식(일부)	민도리, 초익공	민도리, 익공식	민도리
처 마	겹처마	홑처마	겹처마, 홑처마	홑처마
내림기와	막새기와	아귀토마감	막새기와, 아귀토마감	아귀토마감
지 붕	맞배	맞배	팔작, 맞배	맞배
가 구	5樑, 7樑(일부)	3樑	5樑	3樑, 4樑
마룻대공	파련대공, 판대공	동자주	판대공	동자주
도 리	굴도리	굴도리, 납도리	굴도리	납도리

표5. 홍주향교의 문묘구역내 건물 위계성

건물명 / 건축내용	大成殿	東·西廡	祭器庫	內三門
건축규모	3間 * 2間	3間 * 2間	3間 * 2間	3間 * 2間
기단높이	1,300	850	400	100
기단재료	장대석	막돌	막돌	흙
초석재료	막돌(퇴주:원형장 초석)	막돌	막돌	막돌
기 둥	圓柱(직경:400)	圓柱(직경:250)	方柱	方柱
공 포	二翼工(一出目)	初翼工(無出目)	민도리	민도리
지 붕	맞배(풍판)	맞배(풍판)	맞배(풍판)	맞배
처 마	겹처마(후면: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가 구	1高柱5樑	3樑	3樑	3樑
도 리	굴도리(장혀)	〃	납도리	〃
마룻대공	판대공	판대공	동자주	동자주
창방과 도리사이 (전면주간)	화반2具	소로4具	창방없음	창방없음

에서 교단, 교당이 없고 아울러 종교적 실천의식도 없다. 종교의 본질은 신을 숭배하고 피안을 추구 하는데 있다고 있다. 유교의 현실구세의 관념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 신앙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교는 통념상 종교건축으로만 이해 할 수 없다. 어쩌면 향교는 유학의 사회적 관습, 그리고 爲政者와의 관계속에 건립된 일종의 制度化된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 및 외장에 있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다.

향교건축의 조형미는 단적으로 말해 절제된 단순화에 있다. 유교의 이념중 절약과 검소는 禮의 기준이 되어 사회의 윤리규범을 정립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적인 면에서도 화려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규모가 증대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유교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대성전도 정면 5間이 최고의 규모였고 상당수의 향교에서는 정면 3間이 보편적인 건축으로 받아들여 졌다. 유교사회에서 당시 국가적 배려나 지방 유림들의 관심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규모로, 또는 단층이 아닌 중층의 건물로도 造營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의 成均館이 5間이고 단층이었던 관계로 上下의 位階的 질서가 건축의 한계로 작용했을른지도 모른다.

외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징적이나 장식적인 요소는 모두 배제되어 있다. 잡상이나 용두 등도 볼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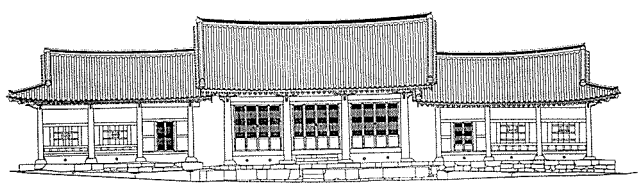


그림14. 羅州향교 명륜당 정면도 (자료 : 예그린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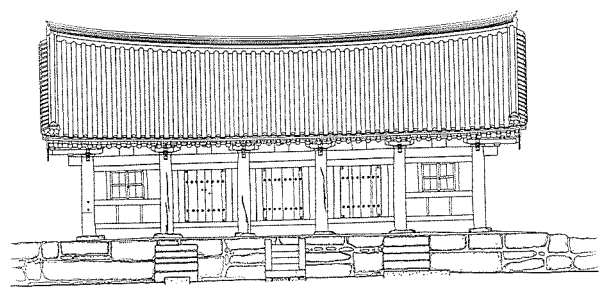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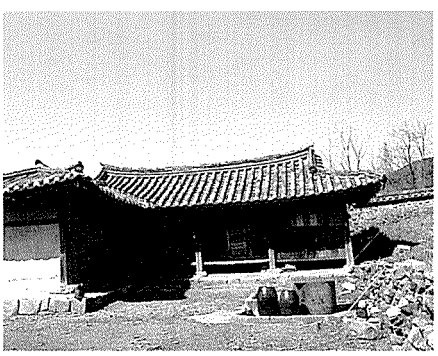


그림15. 東萊향교 대성전 정면도 (자료 : 삼성건축사무소)

괴산향교 서무 '西廟' 라는 현판을 걸어 격을 높이려 했다



충남 남포향교 서재, 이 지역 살림집 모양으로 지어졌다.

서천향교 대성당 공포(이익공)

공포의 구성도 익공식이 절대적인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에 사찰건축의 본전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다포양식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명륜당의 경우는 더 단출하게 민도리 양식이 상당수 향교에서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통일적인 요소가 강하다. 표 4는 건물별 개략적인 구조와 조형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시대 유교가 "禮" 중심으로 민중교화에 이바지 했으나 縱的인 上下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념때문에 서열의식과 권위에 대한 맹종을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건축에서 위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性理學的 사회윤리는 신분계급에 따른 家舍規制를 낳았고, 남녀관계를 규제한 內外法은 男女의 居主空間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三綱五倫에 있어 長幼有序는 가족의 장남을 夫權繼承者로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일 주택에 있어서 長男을 위한 공간이 중요시 되어 官位에 出入하게 될 때에는 작은 사랑을 큰 사랑 옆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향교는 그 어느곳보다도 유교적 倫理規範이 자율적으로 행해졌던 곳임을 감안할 때 외형적인 건축의 현상도 그에 못지 않게 위계적임을 알 수 있다.

文廟區域의 경우 大成殿과 東.西.廡는 명칭상부터 殿과 廡로 하여 현격한 인식차를 갖게 하였다. 즉 孔子를 비롯해 四聖을 모신 건물은 '殿'으로 명명하여 대궐과 같은 위계를 갖게 하였고 반면에 我國十八賢및 中國의 하위 先師를 모신 건물은 "廡"라고 하여 행랑의 정도로 격하시켰다.

건축구조에 있어서도 東.西.廡는 3樑架前退를 둔 경우는 4樑架가 일반적인 유형으로 채택된 반면에 대성전은 5樑 내지 7樑으로 꾸몄다. 部材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은 원주를 사용한 반면 동.서무는 상당수 향교에서 방주를 사용하였다(전면 退柱의 경우는 圓柱). 대공도 대성전의 파련대공 내지 판대공 사용에 반해 동.서무는 동자주 내지 판대공을 놓았다. 공포의 구성도 대성전이 出目을 둔 익공식인 반면에 동.서무는 민도리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당한 위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면의 구성상 중요한 시각효과를 보여주는 기단도 사용 재료와 높이차로 두 건물간의 위계적 계층을 더욱 심화시켰다.

사례로 조선시대 中設位였던 충남 홍주향교의 文廟구역내 각 건물의 위계성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강학구역의 경우도 명륜당과 동.서무는 규모나 구조, 양식적인 면에서 文廟구역의 건물과 같은 질서체계를 갖고 있다. 이는 유학을 강학하고 스승이 머무는 "堂"과 제자들이 기거하는 "齋"는 신분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건축윤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성전과 명륜당과의 관계에서도 위계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표4에서 보듯이 기단, 가구형태, 공포, 처마, 기와 등 전부분에 걸쳐 고루 차이를 두고 있어 유교적 서열 관계가 향교건축의 구조에도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사례별로 보면 수원, 청풍, 곡성, 산청, 영주향교 등 전국의 상당수 향교에서는 대성전이 익공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명륜당은 민도리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마의 형태도 대성전은 겹처마로, 그리고 명륜당은 홑처마로 하여 위계성을 표현한 향교도 많다(창령, 안의, 음성, 청풍, 지예, 고흥, 남평향교 등). 초계, 함양, 거창, 순천, 옥과, 진도, 청하, 개령, 영주향교 등 전국의 많은 향교에서는 대성전에는 내림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나 명륜당은 동.서무와 함께 백색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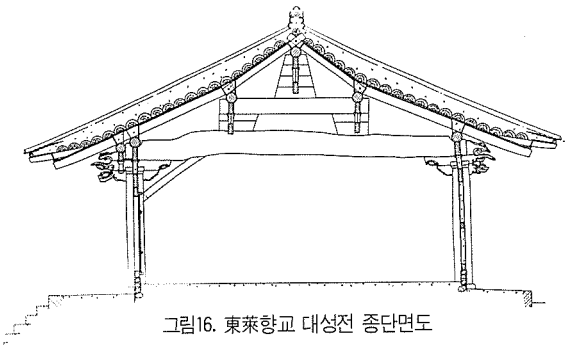


그림16. 東萊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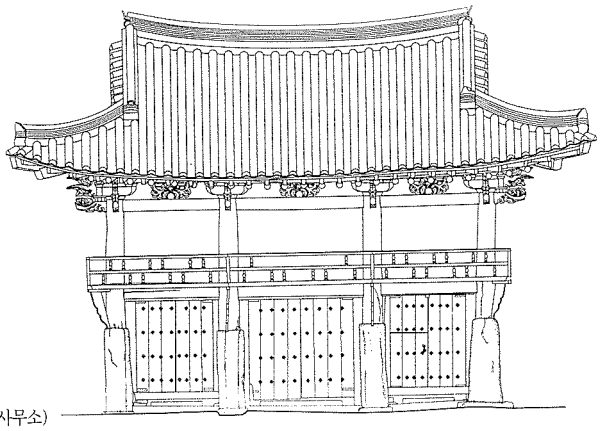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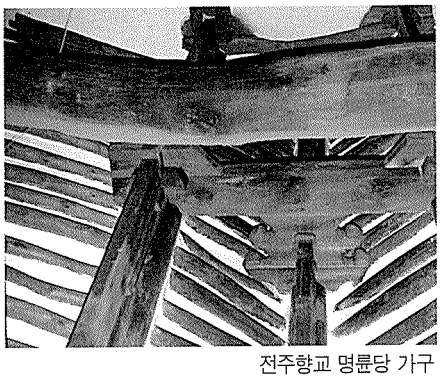


그림17. 東萊향교 반화루 정면도 (자료 : 삼성건축사무소)

은진향교 명륜당 공포



전주향교 명륜당 가구

시원하게 올려진 들어열개창. 보은향교